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송선희

호서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부교수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about Personality Trai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Affect on Preparing Their Old Age

Sun-Hee Song

Dept. of Liberal Arts,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 때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며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조화된 검사지 총 450부 중 426부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성격특성 중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은 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신경증은 부적 상관관계가 경제적 준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정서적 준비에 대하여 34.6%를 설명하고 있고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셋째,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신체적 준비에 대하여 28.1%를 설명하고 있고 친화성과 신체적 준비 간에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었다. 넷째,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경제적 준비에 대하여 15.9%를 설명하고 있고 개방성과 경제적 준비 간에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성격특성, 노후준비,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when personality trai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would influence the preparation for old age. The survey targets are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live in Seoul, Gyeonggi province, Chungcheo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who are using the programs of Multicultural Center, and who could communicate each other. The analysis was also conducted on 426 of 450 questionnair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extro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openness of personality traits appear as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preparation, physical preparation, financial preparation, marriage satisfaction. However, financial preparation has no correlation with neuroticism. Second, personality traits and marriage satisfaction explain about emotional preparation as 34.6 %, but there is no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Third, personality traits and marriage satisfaction explain about physical preparation as 28.1%. In addition, agreeableness and physical preparation have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Fourth, personality traits and marriage satisfaction explain about financial preparation as 15.9%. Moreover, openness and financial preparation have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Key Words : married female immigrant, personality traits, preparation for old age, marriage satisfaction, mediation effect

* “이 논문은 2014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4-0074)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fund of Hoseo University in 2014”

Received 1 January 2016, Revised 30 January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6, Published 28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Sun-Hee Song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Email: shsong@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여성이다[1]. 2012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는 다문화 가족 266,547가구, 결혼이주여성, 귀화자 등 283,224명(여성226,084명, 남성57,14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2]. 김영란(2013)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2013, 9월 말 기준)을 보면 1,584,524명 중 결혼이민자는 49.4%, 외국인 인력 34.4%, 유학생 5.5%, 기타 9.5%를 차지하고 있다[3].

오늘날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저 출산, 고령화시대에 직면한 한국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에서 일과 양육의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되는데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이러한 부담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속에서 늘어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9, 10, 11]에서는 노후준비태도를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준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서적 준비에 있어 노년기에는 역할 상실로 인하여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12]고 했다. 신체적 준비에 있어 노후대책을 세울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건강 문제이며[9]. 여성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부모역할의 감소, 출산능력의 상실, 노년기 시작 등 여성특유의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배문조[13]는 중년층 중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노후준비태도가 높아 신체적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 준비에 있어 노후보장문제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이 빈곤한 이유는 우선 젊어서부터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이 노년기 이전에 연금이나 저축 등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에 있어 노인의 78.6%가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14].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격특성이 있다 [5, 6, 7, 8]. 인간의 성격 중 외향성과 신경증의 두 가지 차원이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데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신경증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성격특성이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정서적 준비에, 친화성과 개방성이 신체적 준비에, 신경증, 성실성, 개방성이 경제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15], 부부만족은 부부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긍정적 태도로 정의되고 있다[16]. 부부관계는 가족 내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요하는 관계이다[17].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의 언어 및 생활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 타국에서 적응과정에서 겪는 외로움, 나이차이로 인한 부부관계의 어려움, 우울 등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는 결혼지속과 노후생활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도 노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성격요인과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결혼만족도가 노후생활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성격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 때 결혼만족도에 따라 노후준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 노후준비, 결혼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 중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 중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 중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며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들이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450부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24부를 제외하고 426부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Country of origin	China	80	18.8
	Vietnam	123	28.9
	Philippines	51	12.0
	Japan	97	22.8
	Mongolia/ Other	75	17.6
	Total	426	100.0
Age	Less than 25 years	59	13.8
	26~30 years	93	21.8
	31~35 years	108	25.4
	36~40 years	71	16.7
	41 years and more	95	22.3
	Total	426	100.0
Marriage duration	Less than 2 years	70	16.4
	Less than 2-5 years	130	30.5
	Less than 5-8 years	105	24.6
	Over 8 years	121	28.4
	Total	426	100.0
Education history	Elementary School	75	17.6
	Middle School	98	23.0
	High School	132	31.0
	University	121	28.4
	Total	426	100.0
Monthly income (Won)	1,000,000	33	7.7
	1,010,000 to 1,500,000	36	8.5
	From 1,510,000 To 2,000,000	116	27.2
	2,010,000 to 3,000,000	188	44.1
	More than 3.01 million	53	12.4
	Total	426	100.0

2.2 조사도구

2.2.1 성격특성

성격특성은 이희현[19]이 사용한 척도로 검사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성격 척도는 개발된 바 없으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Big 5 성격유형 항목을 결혼이주여성에 맞게 수정하였다. 성격특성은 외향성 6 문항, 신경증 6 문항, 친화성 6 문항, 성실성 6 문항, 개방성 6 문항 등 30 문항의 5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외향성 .649, 신경증 .755, 친화성 .515, 성실성 .730, 개방성 .771로 나타나 친화성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낮아 결과 해석이 제한적이다.

2.2.2 노후준비

노후준비의식의 문항은 손희란[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정서적 준비의식 9 문항, 신체적 준비의식 9 문항, 경제적 준비의식 7 문항으로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 점부터 '매우 그렇다'는 5 점까지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의식의 신뢰도는 신체적 준비의식 .725, 정서적 준비의식 .653, 경제적 준비의식은 .796으로 나타났다.

2.2.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설문지는 한남주, 임경숙[21, 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남편이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부부사이의 친밀감, 부부의 성생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남편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정도,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정도 와 같은 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남주[21] 연구에서 신뢰도는 .889, 임경숙[22]의 연구에서는 .90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4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계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 노후준비,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223**	1							
3.	.310**	-.189**	1						
4.	.470**	-.239**	.368**	1					
5.	.518**	-.187**	.266**	.567**	1				
6.	.394**	-.180**	.350**	.483**	.467**	1			
7.	.295**	-.136**	.334**	.354**	.445**	.541**	1		
8.	.189**	.013	.172**	.263**	.260**	.431**	.492**	1	
9.	.313**	-.279**	.253**	.299**	.350**	.301**	.299**	.272**	1

* $p < .05$, ** $p < .01$, *** $p < .001$ (1. Extraversion, 2. Neuroticism, 3. Agreeableness, 4. Conscientiousness, 5. Openness, 6. Emotional preparation, 7. Physical preparation, 8. Financial Preparation, 9. Marriage Satisfaction)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과 노후준비 및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성격특성 중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은 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모두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신경증은 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 결혼만족도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경제적 준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노후준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모두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2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의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두 번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의식 중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 번째 모델에서는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의식 중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인들인 연령, 학력, 결혼기간, 월평균수입 등 사회학적 변인들은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428-.954, 그리고 상승 변량(VIF)은 1.048-1.165로 각각 정상범위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Table 3>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about Personality Trai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Affect on emotional preparation

Categories	Model 1 (Personality traits→ Emotional preparation)		Model 2 (Personality traits→ Marriage satisfaction)		Model 3 (Personality traits, Marriage satisfaction, Emotional preparation)		
	B	β	B	β	B	β	
constant	7.545		11.293		6.773		
control variables	age	.102	.033	-.628	-.187**	.145	.047
	educational history	.206	.052	.446	.105*	.176	.045
	marriage duration	.052	.013	.273	.064	.033	.008
	monthly income	.422	.107**	.506	.119**	.387	.099*
independent variables	Extra-version	.167	.130**	.133	.096	.158	.123*
	Neuroticism	-.009	-.008	-.245	-.195***	.008	.007
	Agreeableness	.257	.154***	.202	.112*	.243	.146**
	Conscientiousness	.337	.234***	.035	.023	.335	.232***
mediated variables	Openness	.212	.195***	.228	.194**	.197	.181**
	Marriage satisfaction					.068	.074
R^2		.342		.234		.346	
Adjusted R^2		.328		.217		.330	
R^2 Change		.273		.162		.004	
F		34.512***		17.551***		2.659	

* $p < .05$, ** $p < .01$, *** $p < .001$

모델 1은 성격특성이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로 모델의 설명력은 $R^2 = .342$ 로 성격특성이 정서적 준비에 대하여 34.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성격특성 중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성($\beta = .130$, $p < .01$), 친화성($\beta = .154$, $p < .001$), 성실성($\beta = .234$, $p < .001$), 개방성($\beta = .195$, $p < .001$)은 정서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로 모델의 설명력은 $R^2 = .234$ 로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23.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성격특성 중 신경증($\beta = -.195$, $p < .001$),

친화성($\beta=.112, p<.05$), 개방성($\beta=.194, p<.01$)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로 모델의 설명력은 $R^2=.346$ 로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정서적 준비에 대하여 34.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은 결혼만족도가 추가로 투입되어도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의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세 번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에서도 공차한계는 .437-954, 상승변량(VIF)은 1.048-2.289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으며,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about Personality Trai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Affect on Physical preparation

Categories	Model 1 (Personality traits→ Physical preparation)		Model 2 (Personality traits→ Marriage satisfaction)		Model 3 (Personality traits, Marriage satisfaction, Physical preparation)		
	B	β	B	β	B	β	
constant	11.457		11.293		10.192		
control variables	age	-.331	-.095	-.628	-.187**	-.261	-.074
	educational history	.537	.121*	.446	.105*	.487	.109*
	marriage duration	-.277	-.062	.273	.064	-.307	-.069
	monthly income	-.005	-.001	.506	.119**	-.062	-.014
independent variables	Extra-version	-.001	-.001	.133	.096	-.016	-.011
	Neuroticism	-.029	-.022	-.245	-.195***	-.001	-.001
	Agreeableness	.386	.205***	.202	.112**	.363	.193***
	Conscientiousness	.107	.066	.035	.023	.103	.063
	Openness	.404	.328***	.228	.194**	.379	.308***
mediated variables	Marriage satisfaction					.112	.107*
	R^2	.272		.234		.281	
	Adjusted R^2	.257		.217		.264	
	R^2 Change	.208		.162		.153	
	F	23.753***		17.551***		17.674***	

* $p<.05$, ** $p<.01$, *** $p<.001$

모델 1은 성격특성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로 모델의 설명력은 $R^2=.272$ 로 성격특성이 신체적 준비에 대하여 27.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격특성 중 친화성($\beta=.205, p<.001$)과 개방성($\beta=.328, p<.001$)이 신체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로 성격특성이 결혼만족에 대하여 23.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34, p<.001$). 성격특성 중 신경증($\beta=-.195, p<.001$), 친화성($\beta=.112, p<.05$), 개방성($\beta=.194, p<.01$)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로 모델의 설명력은 $R^2=.281$ 로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신체적 준비에 대하여 28.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은 결혼만족도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값이 다소 줄어들어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성격특성과 신체적 준비 결혼만족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산출된 Z값의 임계치인 ± 1.96 에 비교하여 $p<.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 검증결과, 친화성만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Z값은 2.07($p=.0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성격특성 중 친화성과 신체적 준비 간에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의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네 번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에서도 공차한계(Tolerance)는 .437-954, 그리고 상승변량(VIF)은 1.048-2.289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모델 1은 성격특성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성격특성이 경제적 준비에 대하여 13.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30, p<.001$). 성격특성 중 성실성($\beta=.144, p<.01$)과 개방성($\beta=.181, p<.01$)이 경제적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로 성격특성이 결혼만족에 대하여 23.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34, p<.001$). 성격 특성 중 신경증($\beta=-.195, p<.001$), 친화성($\beta=.112, p<.05$), 개방성($\beta=.194, p<.01$)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about Personality Trai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Affect on Financial preparation

Categories	Model 1 (Personality traits→ Financial preparation)		Model 2 (Personality traits→ Marriage satisfaction)		Model 3 (Personality traits, Marriage satisfaction, Financial preparation)		
	B	β	B	β	B	β	
constant	7.753		11.293		5.753		
control-variables	age	-.434	-.141*	-.628	-.187**	-.322	-.105
	educational history	-.213	-.055	.446	.105*	-.292	-.075
	marriage duration	.248	.064	.273	.064	.200	.051
	monthly income	.360	.093*	.506	.119**	.270	.069
independent-variables	Extra-version	.020	.016	.133	.096	-.004	-.003
	Neuroticism	.108	.094	-.245	-.195***	.151	.132**
	Agreeableness	.145	.088	.202	.112**	.109	.066
	Conscientiousness	.205	.144*	.035	.023	.199	.139**
	Openness	.195	.181**	.228	.194**	.154	.143**
mediated-variables	Marriage satisfaction				.177	.194***	
	R^2	.130		.234		.159	
	Adjusted R^2	.111		.217		.139	
	R^2 Change	.097		.162		.029	
	F	9.317***		17.551***		14.178***	

* $p<.05$, ** $p<.01$, *** $p<.001$

모델 3은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경제적 준비에 대하여 15.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59, p<.001$). 독립변수인 성격특성은 결혼만족도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값이 다소 줄어들어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방성만 유의한 매개효과($Z=2.82, p=.004$)를 보여 성격특성 중 개방성과 경제적 준비 간에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 때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주요발견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특성 중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은 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신경증은 부적 상관관계가 경제적 준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신경증 특성이 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경증 특성이 강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하여 34.6%를 설명하고 있고, 성격특성이 정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 때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신체적 준비에 대하여 28.1%를 설명하고 있고, 친화성과 신체적 노후준비 간에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친화성 있는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은 결혼만족도에 따라서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하여 15.9%를 설명하고 있고, 개방성과 경제적 노후준비 간에서 결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성 있는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은 결혼만족도에 따라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노후준비 지원을 도모할 대안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적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이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격특성이 그들의 삶과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결혼만족도에 따라 노후준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 고령화 사회의 예비 노인인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재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노년기의 삶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리라는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다[1].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성격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는 부부 중 한명만 고려한다고 해서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니므로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undertaken with the support of a research grant awarded in 2014 from Hoseo University

REFERENCES

- [1] Moon, M, Song, S. H., “Effec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al-Leisure Activities on Their Preparation Perception for Their Later Life in Choongchungnam-Do”.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2, No. 7, pp. 379-387, 2014.
- [2] Bureau of Statistics, “2011 Marriage statistics”. 2011.
- [3] Kim, Y. R., “Multicultural society, korea : culture diversity and mutua lifel” pp. 11, 2013.
- [4] Son, H. R., Song, S. H., “A Study on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and Marriage Satisfaction in Terms of Preparing Their Old Age in Chungcheongnam-do”.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9, No. 10, pp. 57-69, 2011.
- [5] Moon, M., “Effec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Personality, Consciousness of Later,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ir Preparation of Their Later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venture Hoseo, 2014.
- [6] Yu, I. S., “Effects of the personality Traits, society Activity Leisure Activity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perception for the Old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venture Hoseo, 2011.
- [7] McCrae R.R., and Costa P.T., Jr. “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 509-516, 1997.
- [8] Yu, I. S., Choi, S. I., “Effects of the Personality Trait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Behaviors for the Old Age - Focused on the Cheon-An Industrial Complex’s Worker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245-262. 2012.
- [9] Bae, K. H. “A Study on Preparation for Old Age of Adulthoo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1988.
- [10] Park, K. M. “A Study of Middle Aged Women’s Health Status, Preparation for the Aged and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Aju University, 2013.
- [11] Lim, H. J.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condition and preparation for the old-aged in the middle-age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2.
- [12] Lee, H. S. “Study on the Workers of Earned Income Preparation about Life after Old Age : Focused on Ansan C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09.
- [13] Bae, M. J. “Middle aged People’s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Preparations for their Old age”. Th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3, pp. 1107-1122. 2009.
- [14] Bureau of Statistics, “2009 Statistics”. 2009.
- [15] Beach, S., Katz, Kim, S., & Brody, GH., “Per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2003.
- [16] Lee, K. S. “A Study for predict factors on divorce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Issue, Vol. 6, No. 2, pp. 97-119. 2001

- [17] Kim, T. H., Jun, G. Y. "A Study on the Conjugal Support, the Share of Household Activities and Marital Adjustment in Old Age". Th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17, No.2, pp. 167-182. 1997.
- [18] Rowe, J. W. & Kahn, "Successful Aging", NY: Dell Publishing. 1998.
- [19] Lee, H. 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igence factors in hierarchical model and the personality factor in big 5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eong Women's University, 2007.
- [20] Son, H. R. "A Study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and Marriage Satisfaction on the Perception of Preparing Their Old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venture Hoseo, 2012.
- [21] Han, N. J. "A Study on Multi-Culture Family Women's Satisfaction with Marital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ungnam University, 2009.
- [22] Lim, K. S. "A Study on Women of Multi-Culture Families for preparation of Old Life ".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0.
- [23] Young-Ae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1, pp. 15-20, 2011.
- [24] Hyea-Kyung Lee, Eun-Hee Shin, Yeon-Kyung Kim, "Converged Influencing Factors on the Stages of Change of Exercise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87-197, 2015.

송 선 희(Song, Sun Hee)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석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교육학박사)
- 2002년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노인심리, 노인교육, 다문화교육
- E-Mail : shsong@hoseo.edu